

한국불교 '정체성' 을 말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불교사 속 한국불교' 국제학술대회

10월 23~24일 금강대서

동아시아 불교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 불교를 조망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국제불교학술대회가 10월 23~24일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 주최로 금강대에서 열린다. 금강대(총장 김유혁)로서는 개교 이래 첫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팽카스터 교수(미국 서부대 총장),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를 비롯해 9개국 24명의 한국불교학 권위자들이 발제·논평자로 대거 참가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아시아 불교사 속의 한국불교'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 가운데 14편이 해외 연구자의 성과물로,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어 학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국불교의 정체성'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버스웰 교수의 '한국적 불교전통의 부상', 조컨센 교수의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불교의 특성', 그리고 김성현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해당된다.

이들 논문은 공히 한국불교를 통불교 또는 호국불교로 규정하는 입장들에 대한 비판 내지는 반성으로부터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귀결점은 상이하다. 다음은 이들 논문의 요지.

독자적 담화 성숙 안데

로버트 버스웰 교수
근대 이전 한국의 불교도들은 '한국' 불교도라 여기기보다는 법맥에 따른 문종의 일원으로 간주하거나 한국을 범아시아적 불교 속에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강했다. 인도 아쇼카 왕의 8만4천 부도탑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 등의 주장이 한 예다. 이는 한국불교만의 독자적인 담화(unique narrative)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의 불교도 사이에서 '민족' 감정은 조선후기의 불교개혁운동 때 처음 나타나며, 최남선 등의 통불교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일본 불교학자들의 자민족 불교 예찬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한국인에 대한 정서적 호소를 위해 '설정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

'특징' 무시한 일반화 위험

존 조컨센 교수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모색은 내재적인 차이를 모호하게 하는 민족주의적 시도다. 이는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복제품 정도로 간주하는 일본인과 서구인에 대한 반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동기들은 정작 전통 내에 있는 다양성을 볼 수 없게 해 몇몇 위대한 인물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민중불교와 대중신앙을 무시하게끔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특징들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이므로, 이를 무시한 일반화는 특징을 변질시키기 쉽다. 그 특징들은 다른 조건이 변함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갖는 것으로

서, 특정 시간과 특정장소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시대·문화 역사적 연구 필요

김성현 교수
버스웰 교수와 조컨센 교수의 지적은 한국불교 연구자들이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민족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통불교론은 한국불교의 다양한 특징과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하지만 이처럼 민족주의적 시각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해서 한국불교에 대한 개별연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시대의 불교를 이상화하거나 특정 인물을 한국불교의 대표자로 논하기보다는 시대별 과제와 문화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양성 속 전통찾기 바람직

조은수 교수
한국불교 성격 부재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판 대상은 한국불교 성격 존재론자들이 특성을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문화간 교류와 습합의 역동적 과정을 간과하는 데서 비롯된 문화 에센셜리즘의 오류다. 이 같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특성을 찾기에 앞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내고, 역사상 구현된 구체적인 한국불교의 전통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불교의 공통적 특성을 찾으려다 보면 전통에 대한 의식의 총체로서의 한국불교 전통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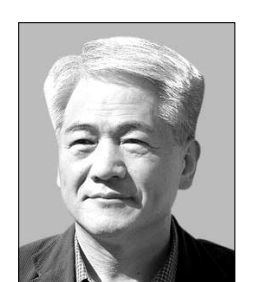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날짜	시간	발제 및 강연	주 제	논평자
10. 23	13:00~14:20	로버트 버스웰(미국 UCLA) 조은수(서울대)	한국불교 전통의 출현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불교의 특성	권기중(동국대) 루이스 팽카스터(미국 서부대)
	14:30~15:50	요우치 히로토(일본 토다이 지 도서관) 헨릭 소렌센 (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세미나)	고려 속종교와 일본 종세불교 동아시아전통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밀교의 성격	존 조컨센(호주 그리피스대) 서윤길(동국대)
	16:00~17:20	세르게이 볼코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연구소) 존 조컨센(호주 그리피스대)	초기 중세시기 동아시아에서의 국가와 불교 16~19세기 한국과 중국불교 비교상의 제문제	김성현(동국대) 헨릭 소렌센(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세미나)
	10. 24	9:30~12:00	요르그 플라센(독일 보름데) 김훈(중국 북경대) 최기표(금강대)	중원의 법문: 중국불교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 본 화쟁사상 불교의 중국적 전개와 고대 한국불교 (대승기신론) 수행신앙론 주석에 나타난 원효와 법정의 영향관계와 인용대도
13:00~15:30	13:00~15:30	핀카스 오한(호주 시드니대) 이시이 코세이(일본 코미자와단기대)	신라 중고기의 사리신앙과 왕권의 정당화 의상 계통에서의 화엄과 선의 통합	최연석(금강대) 요르그 플라센(독일 보름)
	15:40~17:20	진화 쉐나(나타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모로 시게키(일본 히노조노대학) 찰스 윌러(일본 토요구엔대학)	소그드계 중국어에 대한 한국에서의 전기 현정의 유식비량과 신라불교 열 가지 경전을 통해 본 이경(二卿)의 본질 설명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김성현(동국대) 안성투(금강대)

인터뷰

"세계화 앞당기는 담론의 자리될 것"

권탄준 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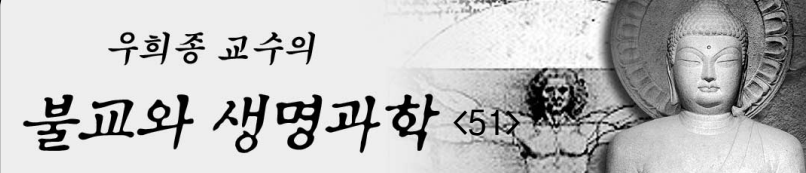
"해외의 한국불교학 연구자들은 사상적 고향인 한국불교학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권탄준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국내 한국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소장으로서 해외의 연구자들을 위한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는 자성과 이번 대회의 의의를 읽을 수 있는 말이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주요 이슈로 삼은 이유에 대해 권 교수는 "한국불교의 성격 규정은 지난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한국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토대"라며 "따라서 한국불교 정체성은 연구자들에게 화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외 연구자의 발표를 들어보면서 내부자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불교를 조망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했다"고 밝혔다.

이러 권 교수는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주최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 대해 "설립한지 1년 남짓 돼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지만, 장차 불교학계를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권 교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에 국내외 불교학 연구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는 상시적인 네트워크의 구성점으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우선 연구논문 집 발행, 한국불교워크숍 등을 자주 열고, 국제학술대회도 격년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원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연기적 관계

오늘날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은 모든 대상을 잘게 잘라내어 부분으로 만들고, 그 부분들을 알아냄으로써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는 환원론적 방법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이러한 방법이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태파괴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과학이 대상(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식인 환원론적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상을 잘게 자른 후자란다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과 같다. 그것을 종합하면 전체의 모습이 보인다든 과학적 가정을 치명적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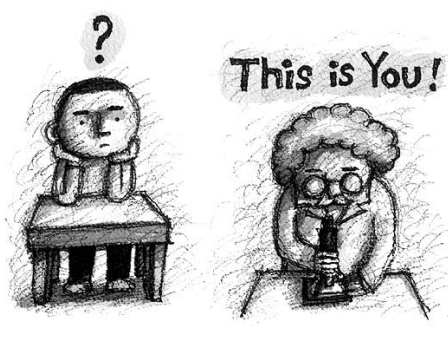
의 생명체로서의 사람을 과학적으로 잘게 잘라 들어갈 때 사람은 장기가 되고, 세포가 되고, 유전자 되고, 핵산이 되고, 탄소와 수소가 되고, 원자와 전자 되고, 양성자 등의 소립자가 되고, 드디어는 약하고 강한 힘으로까지 도달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역으로부터 합성해 올라간다면 어디서부터 인간이라 할 것인가. 사실 결론 내리기가 애매한 것이다. 이러한 면이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렇듯 역으로 올라갈 때 각 단계에서 밑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 한다. 기존 부분의 합이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100이나 100이 되는 현상으로서 단순한 물리화

해체와 결합, 연기론 입장에서 이해 생명현상과 관계 다루는 바른 자세

를 만들고 이 새로운 체계는 다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체계에 대하여 역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체계와 그걸 이루고 있는 작은 체계조차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변화하여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적 세계이다. 사실 결론 내리기가 애매한 것이다. 이러한 면이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렇듯 역으로 올라갈 때 각 단계에서 밑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 한다. 기존 부분의 합이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100이나 100이 되는 현상으로서 단순한 물리화

를 만들고 이 새로운 체계는 다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체계에 대하여 역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체계와 그걸 이루고 있는 작은 체계조차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계속 변화하여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현상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는 연기적 세계이다. 사실 결론 내리기가 애매한 것이다. 이러한 면이 어디서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렇듯 역으로 올라갈 때 각 단계에서 밑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창발(emergence)이라 한다. 기존 부분의 합이 단순히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100이나 100이 되는 현상으로서 단순한 물리화



더 빠르! 더 좋은! 더 저렴한!

물자 생활 정보

문의: TEL 02)732-1522
02)737-8881
FAX 02)737-0697

가격: 1Box(4.4×4.4) 4만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부작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등,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055-882-3455
016-428-6665

범패, 염불, 학인 모집중

천도재 49재, 선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 행사 염불해 드립니다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중
태중 아기 영가(부대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02)3391-8523
011-9002-8523

비구니스님이 만든 여성이미저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차, 천식, 간장병, 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전드린 함유

055)345-6667

역학개인지도
시주에 필요한 모든 것
명리학, 성명학, 태일, 풍수

밝은미래를 여는 해공 협장

02)421-8494
017-606-6628

神 비법 강의

요즘 불사 어렵죠.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알아주세요.
이곳에 선지식 1번 제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
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볼 수 없습니다. 나쁜
누구나 출몰할 뿐이기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몽사 서담 법경 합정염불사 어렵죠. 초종
파 불문하고 무조건 알아주세요. 이곳에 선지식 1번
제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
지만 모르면 볼 수 없습니다. 나쁜 누구나 출몰할 뿐
이기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둔탁해지며
영산자법과 우리말이 사라져
심과 경건, 연속의 극대화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1-9221-1291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011-9221-12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011-9571-6479

명리·육효공개강좌

강의 듣고 수강신청: 초보, 주야반
특수비법: 영기찾는 법, 개운법, 신살암기법,
쉬운 오행비법, 초보지도 들으면 기억됨

02)542-8404
011-9150-2284

이십팔속 개인지도

사주와 이십팔속의 특수비법 쉽게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지도: 대주스님

HP: 011-741-0867 (공) 02)926-1259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경주, 울산, 칠곡, 김포, 양주, 서울, 서울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우학스님(저는 면발 고기
묵고 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011-9852-0075
053-474-8228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교재: 사주철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독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발명특허 (주)황토만세 웰빙향토

사찰암자도굴법당제작 및 리모델링
향토방 팔각정 가정찜질방
원두막 품집

017-409-9599